

# 프랑스 혁명의 문화적 기원, 독서

## 혁명에 미친 독서의 영향

주명철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앙시앵 레짐 말기의 프랑스 사회는 그 나름대로 역동성이 있었다.

프랑스 혁명 연구자들은 1750년대 이후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 당시 쏟아져 나오던 각종 해적출판물을

역동적으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키우던 당시 사회는 1788년의

정치적 무능이나 경제적 위기를 새로운 사회계약의 계기로 이용했다.

오늘날 프랑스 혁명 연구자에게 책, 독서, 여론은 중요한 주제다. 왜냐하면 거기서 혁명의 문화적 기원을 밝힐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책의 역사와 그 내용을 분석하기보다 당시의 독자와 독서 또는 독자의 반응을 알아내는 일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오늘날 문학비평가들은 독서가 의미를 만드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텍스트에 내재하는 것인가, 독자가 스스로 찾거나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텍스트와 독자가 상호작용해서 만드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주고받는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독자의 반응을 조사하기란 어려운데, 하물며 옛 사회의 독자가 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기란 정말 어렵다.

### 문화적 차이가 해석의 차이 낳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프랑스 금서의 연구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로버트 단튼은 “독서가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독서는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것이 아니었다. 문화적 차이가 해석상의 차이를 낳기 때문이다. 심지어 오늘날 비평가들은 남녀의 차이가 해석상의 차이를 낳는다는 데 주목하기도 한다. 로제 샤프티에도 옛 사람들의 독서를 연구할 때 만날 수 있는 세 가지 커다란 대립항목에 대해서 말했다. 우리는 음독/목독, 대중에 섞여서 읽기/홀로 읽기, 식자층의 독서/‘민중의’ 독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소리내 읽기라고 할 때, 글과 친숙하지 못한 사람이 처량한 목소리로 책을 읽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18세기 살롱에 모인 지식인들도 음독을 했다. 루소는 《고백》의 초고를 살롱에서 읽어줬다.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읽거나 홀로 읽기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행위다. 차라리 읽기의 대상으로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른다. 금서, 특히 포르노그래피를 읽을 때 홀로 읽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민중의’ 독서는 주로 성경책이나 기도서, 또는 ‘청색문고’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었으며, 때로는 글읽기를 깨우치는 방법으로 이용됐다.

그러나 이상의 대립항목을 반드시 엘리트/민중이라는 이분법과 연결시킬 수 없다. 차라리 이들이 공통의 문화적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는지를 살피는 편이 더 낫다. 책의 경우, 소유하는 행위를 읽는 행위와 연결시킬 수도 없으며, 직접 읽지 않고서도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민중이라 할지라도 책과 친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도시민의 10%나 되는 하인은 귀족이나 부르주아를 섬기면서 그들의 문화를 접했다. 계몽사상가들에게 살롱을 열어주었던 마담 조프랭은 하인이 등뒤에서 책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을 남겼는데, 이것은 당시 독서 행태의

한 가지 보기라 할 수 있다.

### 각종 해적출판물의 범람으로 여론 형성돼

앙시앵 레짐 말기의 사회는 그 나름대로 역동성이 있었다. 프랑스 혁명 연구자들은 1750년대 이후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당시의 엘리트가 주로 카페, 살롱에서 소식과 지식을 나눴다면, 민중은 길, 다리 위, 일터, 선술집에서 소문, 풍자 노래를 들었다. 입말은 계몽사상가의 편지, 손으로 쓴 수기신문이나 경찰 보고서에 글로 고정되고, 특히 흥미로운 내용은 정기간행물, 또는 1776년 파리에 처음 나온 일간지에서 확대 재생산됐다. 게다가, 합법적인 서적과 그 해적판, 금서와 그 해적판이 규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왔다. 오늘에 비하면 초보적인 다중매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역동적으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키우던 당시 사회는 1788년의 정치적 무능이나 경제적 위기를 새로운 사회계약의 계기로 이용했다.

계몽사상이 혁명을 낳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혁명의 과정에서 계몽사상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계몽사상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입헌군주정에서 자코뱅의 급진주의에 이르기까지 몽테스키외, 볼테르, 루소의 사상이 급류를 타고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앙시앵 레짐 시대에 모든 면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던 여성들도 혁명 초기에는 파리에서 정치 클럽을 결성하고, 《모니토르》 신문을 읽었다. 이들이 혁명기에 갑자기 글을 깨쳤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파리의 경우, 엘리트권 민중이건 혁명 전부터 이미 글과 친숙한 관계에 있었다. 프랑스 혁명의 문화적 기원을 독서에서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